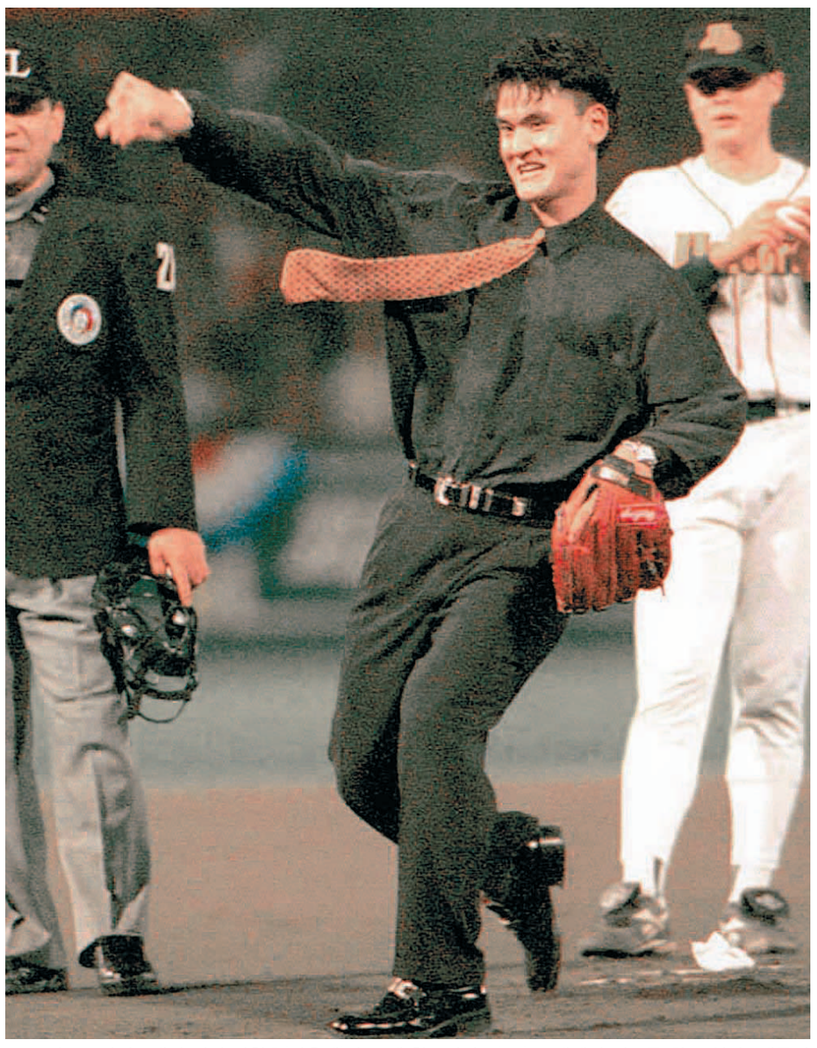
KS 스토리 | 대통령·다저스 구단주·박찬호까지…한국시리즈 시구의 역사

‘다저맨’ 박찬호, 현역 선수 KS 시구 역대 유일

〈1998년 한국시리즈〉

KS 첫 시구는 82년 유흥수 충남지사
4차전 시구자 다저스 오말리 구단주
88년 미스코리아 김성령 연예인 1호
92년 KS 3차전 초등생 김사율 시구
KS 첫 대통령 시구자는 94년 김영삼



1998년 LA 다저스에서 뛰던 박찬호(가운데)가 그해 한국시리즈(KS) 무대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코리안 특급’ 박찬호까지, KS 시구 역사는 실로 다양하다. 스포츠동아 DB

한국시리즈(KS) 시구는 최고의 영광 중 하나로 꼽힌다. 야구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1차전은 물론 매 경기가 스포츠 역사로 남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시리즈 첫 번째 시구의 주인공은 유흥수 충남도지사였다. 1982년 KBO리그 원년 KS 1차전은 10월 5일 OB 베어스의 홈구장인 대전에서 열렸다. 정치인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시절이었다. 그 해 KS는 1·4차전만 시구자가 있었다.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4차전 시구는 피터 오말리 LA 다저스 구단주였다.

연예인이 KS 시구자로 초청된 것은 1988년이 처음이었다. 여전히 톱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김성령이 미스코리아 진 자격으로 공을 던졌다. 고 최진실(1992년)도 KS에서 시구를 한 여배우 중 한 명이다.

야구팬 중에서도 올 시즌 KT 위즈에서 뛴 투수 김사율이 KS에서 시구를 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사율은 1992년 10월 11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빙그레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KS 3차전에서 시구를 했다. 감천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김사율은 야구 꿈나무 자격으로 시구자로 초청됐다. 정치인 일색이었던 초창기 KS 시구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1994년 1차전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시구를 했다. 야구를 깊이 사랑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에 이어 1995년 KS 1차전에서도 시구를 맡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잠실 개막전도 시구를 했다는 점이다. 이승엽 KBO 홍보위원의 프로 데뷔전이기도 했다. 야구를 사랑했던 대통령은 개막전에 이어 KS까지 공을 던지며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역대 대통령 시구는 이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두 차례 더 있었다.

피터 오말리 구단주는 1995년 한 차례 더 시구를 했다. 역대 외국인 시구자는 2명으로 오말리 구단주와 함께 1999년 롯데 기론의 아내 셰린 기론이 주인공이다.

1998년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박찬호는 그해 현역 프로 선수론 처음으로 KS 시구를 했다. 박찬호 이후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시구 기록은 없다.

2000년대에도 KS 시구는 연예인과 정치인, 올림픽 스타가 주를 이뤘다. 2004년 큰 변화의 시작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철도원으로 선정된 김행균씨가 그해 치열한 8차전 승부를 앞두고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2009년은 1차전부터 9차전까지 모두 연예인이 시구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은 2012년 첫 부부 시구자가 됐다. 2014년 6차전은 이듬해 1군 데뷔를 앞둔 KT의 빅과 또리가 시구를 했다. 첫 번째 마스코트 시구였다. 2010년대는 소방관,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 환경미화원, 모범 군인, 용감한 시민 등 일반인들이 자주 시구자로 초청되며 야구축제의 의미를 높였다.

2018년 KS는 1차전에서 야구원로 어우홍 전 감독이 시구자로 나선데 이어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인기 그룹 엑소의 찬열이 시구를 맡았다. 플레이오프(PO)까지 시구자는 홈팀이 선정하지만, KS 시구자는 KBO가 선정하며 해당 경기 전날 발표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 시구 때는 경호를 위해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잠실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2018 ML 골드글러브 주인공들

킨슬러·브래들리 주니어·베츠 WS 챔프 보스턴 3명이나 배출

몰리나 9번째 수상…다저스는 전멸

시즌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수여되는 상, 골드글러브가 2018년의 주인공들을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5일(한국시간)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아메리칸리그는 투수 댈러스 카이클(휴스턴 애스트로스), 포수 살바도르 페레즈(캔자스시티 로열스), 1루수 맷 올슨(오클랜드 애슬레틱스), 2루수 이안 킨슬러(보스턴 레드삭스), 유격수 안드렐톤 시몬스(LA 에인절스), 3루수 맷 채프먼(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좌익수 알렉스 고든(캔자스시티 로열스), 중견수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보스턴 레드삭스), 우익수 무키 베츠(보스턴 레드삭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셔널리그는 투수 잭 그레인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1루수 프레디 프리먼(애틀랜타 브레이브스)·앤서니 리조(시카고 컵스), 2루수 DJ 르메이휴(콜로라도 로키스), 유격수 닉 아메드(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3루수 놀란 아레나도(콜로라도 로키스), 좌익수 코리 디커슨(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중견수 엔더 인시아테(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우익수 닉 마카키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몰리나는 통산 9번째 수상. 월드시리즈 우승팀 보스턴은 세 명의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준우승 팀 LA 다저스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파이어볼러’ 김강률 부상이탈이 아쉬운 두산

KS 1차전서 계투진 2.2이닝 3실점
힘으로 상대타자 압도할 카드 부재

상대 타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강력한 구위, 모든 필승계투요원들이 꿈꾸는 무기다. 타자들의 힘이 떨어지는 경기 후반을 책임지는 투수들에게 빠른 공만한 무기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김강률(30)의 이탈은 한국시리즈(KS)를 치르고 있는 두산 베어스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악재다.

김강률은 시속 150 km대의 강속구를 던진다. 슬라이더와 포크볼, 커브 등 빠른 공을 뒷받침할 변화구도 풍부하다. 경기 후반 상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지녔다는 의미다. 그런 그가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10월19~26일) 기간에 아킬레스건을 다쳐 시즌 아웃됐다. 안정적으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의 이탈은 뼈아프다. 결국 두산 계투진은 4일 SK 와이번스와 KS 1차전에서 2.2이닝 3실점하며 3-7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5일 KS 2차전을 앞두고 만난 MBC스포츠+ 정민철 해설위원도 “김강률은 강속구를 지닌 투수다. 불펜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강속구 투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두산 투수들은 입을 모아 “김강률의 공백을 우리가 대신 메우겠다”고 다짐했다. 애초 두산 코칭스태프도 김강률을 KS의 키플레이어로 지목했었다. 그러다 보니 충격이 두 배다. 플레이오프(PO) 5경기를 치르며 지친 SK 타선을 빠른 공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만한 시나리오가 없는데, 그 선택지가 날아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원준이 1차전에서 흔들린 탓에 향후 불펜운용에도 고민이 커졌다. 함덕주와 박치국, 김승회 등도 강속구 투수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강속구 투수 한 명의 공백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진 모양새다. 정규시즌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던 두산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설까.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포스트시즌 기록실 〈4일〉

•역대 한국시리즈 승패

연도	승리팀	전적	패배팀
1986	해태 (4승1패)	○X○○○	삼성 (1승4패)
1987	해태 (4승)	○○○○	삼성 (4패)
1988	해태 (4승2패)	○○○XX○	빙그레 (2승4패)
1989	해태 (4승1패)	X○○○○	빙그레 (1승4패)
1990	LG (4승)	○○○○	삼성 (4패)
1991	해태 (4승)	○○○○	빙그레 (4패)
1992	롯데 (4승1패)	○○X○○	빙그레 (1승4패)
1993	해태 (4승1무2패)	○X○X○○○	삼성 (2승1무4패)
1994	LG (4승)	○○○○	태평양 (4패)
1995	OB (4승3패)	X○○XX○○	롯데 (3승4패)
1996	해태 (4승2패)	○X○X○○	현대 (2승4패)
1997	해태 (4승1패)	○○X○○	LG (1승4패)
1998	현대 (4승2패)	○○X○X○	LG (2승4패)
1999	한화 (4승1패)	○○X○○	롯데 (1승4패)
2000	현대 (4승3패)	○○○XXX○	두산 (3승4패)
2001	두산 (4승2패)	X○○○X○	삼성 (2승4패)
2002	삼성 (4승2패)	○X○○X○	LG (2승4패)
2003	현대 (4승3패)	○XX○○X○	SK (3승4패)
2004	현대 (4승3무2패)	○○X○○X○○○	삼성 (2승3무4패)
2005	삼성 (4승)	○○○○	두산 (4패)
2006	삼성 (4승1무1패)	○X○○○○	한화 (1승1무4패)
2007	SK (4승2패)	XX○○○○	두산 (2승4패)
2008	SK (4승1패)	X○○○○	두산 (1승4패)
2009	KIA (4승3패)	○○XX○X○	SK (3승4패)
2010	SK (4승)	○○○○	삼성 (4패)
2011	삼성 (4승1패)	○○X○○	SK (1승4패)
2012	삼성 (4승2패)	○○XX○○	SK (2승4패)
2013	삼성 (4승3패)	XX○X○○○	두산 (3승4패)
2014	삼성 (4승2패)	X○○X○○	넥센 (2승4패)
2015	두산 (4승1패)	X○○○○	삼성 (1승4패)
2016	두산 (4승)	○○○○	NC (4패)
2017	KIA (4승1패)	X○○○○	두산 (1승4패)
2018	SK (1승)	○	두산 (1패)

프로농구 〈5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9	8	1	0.889	0	3승
2	KT	10	6	4	0.6	2.5	1패
2	SK	10	6	4	0.6	2.5	2승
2	전자랜드	10	6	4	0.6	2.5	2승
5	인삼공사	9	5	4	0.556	3	1승
5	LG	9	5	4	0.556	3	1패
7	KCC	10	4	6	0.4	4.5	4패
8	삼성	9	3	6	0.333	5	1패
9	DB	10	3	7	0.3	5.5	1승
10	오리온	10	2	8	0.2	6.5	7패

해외축구 〈5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맨체스터시티	11	29	9	0	2
2	첼시	11	27	8	0	3
3	리버풀	11	27	8	0	3
4	토트넘	11	24	8	3	0
5	아스널	11	23	7	2	2
6	본머스	11	20	6	3	2
7	맨체스터Utd.	11	20	6	3	2
8	왓포드	11	19	6	4	1
9	에버턴	11	18	5	3	3
10	레스터시티	11	16	5	5	1
11	울버햄튼	11	15	4	4	3
12	브라이튼	11	14	4	5	2
13	웨스트햄	11	11	3	6	2
14	크리스탈팰리스	11	8	2	7	2
15	번리	11	8	2	7	2
16	사우스햄튼	11	7	1	6	4
17	뉴캐슬	11	6	1	7	3
18	카디프시티	11	5	1	8	2
19	풀럼	10	5	1	7	2
20	허더스필드	10	3	0	7	3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7
①	아우바메양	아스널	7
①	아자르	첼시	7
④	마네	리버풀	6
④	머레이	브라이튼	6
④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6
④	윌슨	본머스	6
④	케인	토트넘	6
④	히샬리송	에버턴	6
⑩	라차제트	아스널	5
⑩	마샬	맨체스터Utd.	5
⑩	모라타	첼시	5
⑩	미트로비치	풀럼	5
⑩	살라	리버풀	5
⑩	시구르손	에버턴	5
⑩	아르나우토비치	웨스트햄	5
⑩	페레이라	왓포드	5
⑱	라멜라	토트넘	4
⑱	루카스	토트넘	4
⑱	루카쿠	맨체스터Utd.	4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첼시	3 - 1	크리스탈팰리스
맨체스터시티	6 - 1	사우스햄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묀헨글라트바흐	3 - 0	뒤셀도르프
마인츠05	2 - 1	브레멘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베티스	3 - 3	셀타비고
에이바르	2 - 1	알라베스
우에스카	1 - 1	헤타페
레알소시에다드	0 - 0	세비야
비야레알	1 - 1	레반테	

•세리에A 경기결과

아탈란타	2 - 1	볼로냐
사수올로	2 - 0	키에보
라치오	4 - 1	스팔
파르마	0 - 0	프로시노네
토리노	4 - 1	삼프도리아
AC밀란	1 - 0	우디네세

•르샹피오나 경기결과

몽펠리에	3 - 0	마르세유
낭트	5 - 0	갱강
생떼띠엔	4 - 3	앙제

NBA 〈5일〉

•경기결과

밀워키	144-109	새크라멘토	브루클린	122-97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111-81	미네소타	올랜도	117-110	샌안토니오
토론토	121-107	LAL	워싱턴	108-95	뉴욕
피닉스	102-100	멤피스	워싱턴	108-95	뉴욕

아마추어 경기결과 〈5일〉

농구 ●2018-2019 KBL D리그 1차(경희대)
•KCC 83-70 SK, 상무 82-77 현대모비스

역도 ●2018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73kg급 남자 인상 순위=① 시지용(중국), ② 리카라드(벨라루스), ③ 펑류동(중국), ⑥ 원정식(한국) •73kg급 남자 용상 순위=① 시지용(중국), ② 원정식(한국), ③ 라히모브(카자흐스탄) •73kg급 남자 종합 순위=① 시지용(중국), ② 원정식(한국), ③ 리카라드(벨라루스)

빙상 ●2018-2019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캐나다 캘거리) •5000m 계주 남자 결승전A=① 헝가리, (은) 한국, ③ 네덜란드 •3000m 계주 여자 결승전A=① 러시아, (은) 한국, ③ 캐나다 •계주 혼성 결승전A=① 중국, ② 네덜란드, (동) 한국

경기 예고

프로농구 〈6일〉

•2018-2019 SKT 5GX KBL

DB	〈원주종합〉	LG
오후7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삼성	〈잠실실내〉	인삼공사
오후7시30분, IB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프로배구 〈6일〉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삼성화재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6일〉

농구 ●2018 KUSF 대학농구 U-리그(수원,오후5시)
•플레이오프 8강=경희대-중앙대

테니스 ●2018년 순천오픈 테니스대회(전라남도 순천시 팔마시립테니스코트)

배드민턴 ●2018 세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캐나다) ●2018 중국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국 푸조우)

골프 ●2019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전(골든베이,오전7시30분)

아이스하키 ●2018-2019 아시아리그(일본 토마코마이)
•이글스-크레인스

태권도 ●2018 전국 남여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철원,오전9시30분)

유도 ●2018 회장기 전국유도대회(경남 삼천포체육관,오전10시)

사격 ●제 15회 동해무릉기 전국 실업단사격대회(동해시 실내사격장,오전9시)